

‘한국 시스템 공학의 밑알이 되어’

-성기수 박사와 KIST 전산실 창설-

이명재

1. 처음 찾아 뵈고

성기수 박사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60년대 말 내가 대학원 학생시절이었으니까 강산이 세번 가까이 변할 만한 옛날이다. 당시 여러 신문에서 하버드 대학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박사학위를 받은 천재적인 젊은 공학도에 대한 얘기가 소개되었다. 그분이 한국개발협회(Korea Development Association)에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울렁이는 마음을 달래면서 찾아가 함께 일할 기회를 달라고 억지를 부렸다. 비슷한 방법으로 모인 이승윤(아시아개발은행 근무중 작고), 안문석(고려대 교수) 그리고 내가 곧 이어 설립된 KIST 전산실에서 성 박사님을 모시기 시작하였으니 이들이 창설 멤버인 셈이다.

어느 날이었다. 전산기 도입을 기다리면서 겨우 한두권의 회귀본(?)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는데 ‘Bit’라는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나는 물리학과를 졸업했는데도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다. 최후의 보루인 성 박사님께 물을 수밖에. 성 박사님은,

“그걸 알아 내는 게 공부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내가 다시,

“그럼 어디서 관련 책을 찾을 수 있습니까?”하고 물으니 성 박사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알아 내는 것 역시 공부야”

또 이런 일도 있었다. 3층에 있는 연구실로 올라가면서도 항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성

박사님께

“걸어 올라가셔도 좋을 텐데요”라고 했더니

“생체 에너지 minimizing이지”라고 대답하십니다.

홍릉의 건물이 완성되기 전 YMCA 건물에 KIST가 있을 때다. 성 박사님에 대하여 많은 얘기를 들어왔던 내 동생이 연구실로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없어 기다리고 있다가 성 박사님을 본 모양이다. 다음에 동생을 만났을 때

“그 조그마한 사람? 짧은 머리에서 비듬을 털어내고 가끔 코털도 뽑던 양반. 그 양반이 성 박사님이시지? 사환은 아닌 것 같고.” 라고 내게 놀란 얼굴로 물었다.

여간해서 식사를 사는 일이 없던 분이 하루는 점심을 사시겠다는 것이다. 당시 점심값이 얼마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1000원~1500원이었다고 해두자. 본인이 1000원짜리 우동(?)을 주문하면서 우리(이승윤, 안문석)도 같은 가격으로 주문하라는 것이다. 사람의 식성이 다르다 보니 각자 다른 음식을 시켰다. 식사를 끝내고 계산을 하는데 날더러 200원을 내란다. 내가 먹은 점심값이 1200원이니 추가분 200원은 내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저런 일들 모두가 내게는 그분의 천재성으로 생각됐던 시절이다.

2. KIST 전자계산실

전산기가 미국 바텔 연구소의 추천에 따라 CDC 3300으로 결정되고 입력카드에 구멍을 뚫고 검색하는 키 펀처(Key Puncher)는 경제기획원에서 빼내왔다. 당시 그 계통의 대모적이었던 이춘희 씨가 두 사람과 함께 합류한 것이다. 이어서 염금자 씨, 박상영 씨, 한웅경 씨, 정호 씨, 최덕규 씨 등이 프로그래머로 선발되면서 우리는 본격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CDC에서 파견된 미국인으로부터 강의를 듣던 중 한 동료는 하숙방의 연탄가스로 숨진 것은 지금까지도 가슴 아픈 일로 남아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동숙했던 다른 한 동료는 건강이 회복되어 지금도 KIST에 근무하고 있다.

우리들의 실력도 미숙했고 전산기 활용도 일반화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공부, 한국은행을 비롯한 몇몇 기관에 대한 교육, 단편적으로 들어오는 용역에 대한 처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내가 주로 처리했던 일은 회귀분석과 산업연관분석 같은 경제학 교수들의 일이었다. 이 인연으로 나도 뒤늦게 미국에서 경제학을 시작하게 된 것 같다.

전산기에 대한 신변 보호는 대단했다. 덩치 큰 친구를 큼직한 방에 모셔 두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면 감기 걸린다고 통제가 심했다. 오퍼레이터와 고참이 아니면 드나들기 힘들었다. CDC 3300의 기능과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486 PC만도 못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큰 쟁반 같은 테이프를 보조 기억장치로 사용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전산기의 발전은 정말 놀라운 속도인 것 같다.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우(遇)를 인간이 또 저지르게 되는 것이 아닌지 슬며시 겁이 나기도 한다.

성기수 박사님의 힘은 바로 미래를 예견하고 과감하게 밀어 붙이는 추진력이라고 생각된다. 전산기의 불모시대에, 일부에서는 예산의 낭비라고 꼬집던 시기에 인력자원을 꾸준히 양성해 왔고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해 왔다. 오늘날 이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인재들이 이분과 직접·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다. 대학입학시험의 채점관리, 종합과제, 금융실명제 등도 그러한 정지작업이 없었으면 가능했을까?

이 분의 사고방식은 일견 매우 단순하게 보이며 또한 후진들을 자상하게 가르치는 타입도 아니다. 종이와 석탄의 차이를 산 나무와 죽은 나무의 차이로 단순화하는가 하면,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대하여 “응, 그렇지” 또는 “응응, 아니지”로 반응하신다. 사물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으면 미래를 확신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여러 비난 속에서 그 어려운 일을 자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는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면서 이 분의 깊은 뜻을 내 나름대로 상상해 본다.

불교에서 큰 성인이 탄생할 때 편다고 하는 상징적인 꽃인 ‘우담바라의 씨는 이미 자네가 가지고 있는 것, 난 거름이 되어 줄 수 있을 뿐이네’ 라는 어느 소설의 한 구절을 되새기면서.

3. 시스템공학의 밑알이 되어

성기수 박사는 가난으로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통하여 서울 공대에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군사관학교 교관시절 서울대 대학원에서 쓴 논문이 항공학 분야의 권위지인 미국의 Aero Dynamics에 게재되어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는 이분을 모시던 당시나 지금도 가끔 ‘이분이 자신의 전공이었던 항공학 분야를 계속했다면 어떠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지만, 그 동안 이루어낸 업적을 생각하면 이분의 인생은 현재의 길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나는 경제학을 시작한 이후 성 박사님을 자주 뵙지 못하였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분의 연구영역은 전산기의 단순한 활용을 넘어서 높은 차원의 시스템공학으로 발전되고 있단다. 작고하신 박정희 대통령이 격려차 KIST 전산실을 방문했을 때 레지스터(Register)를 조작하여 억지로 음악을 연주하고 간단한 그림을 그려 전산기의 능력을 과시하던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한국 시스템공학의 밑알이 되어 많은 새싹을 돋아나게 하고 열매를 맺어 가고 있다. 한결 같은 인품이 이분의 학문적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다. 이분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인재들이 이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회갑은 인생의 참다운 시작이라고 한다. 건강이 오래도록 함께 하여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람찬 삶이 되시길 기원한다.